

한화그룹, 경영전략 전면 재검토

김승연 회장, 경영전략회의 연기 ... 의욕적·적극적 목표 주문

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010년 경영전략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지시했다.

김승연 회장은 1월13일 계열사별로 취합된 2010년 경영목표를 보고받고 “좀 더 보완하라”고 지시하고 오후에 예정됐던 경영전략회의를 1주일 연기했다.

김승연 회장은 경영전략회의의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“더욱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목표”를 세울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.

때문에 각 계열사 최고경영자(CEO)들은 2010년 투자와 매출목표 등을 포함한 경영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.

김승연 회장의 주문은 한화그룹이 2011년까지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로 2009년 내걸었던 <Great Challenge 2011>의 중간 연도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변의 해석이다.

김승연 회장은 신년사에서 “2010년은 글로벌 성장엔진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원년으로 해외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는 불퇴전의 각오로 시작할 것”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.

이에 경영전략회의 자료를 보고받고 자신의 의지와 계열사의 경영목표가 부합하지 않자 보완을 요구하면서 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.

세종시에 태양전지 등 신 성장동력 투자를 결정하기도 한 김승연 회장은 1월27일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리더들의 모임인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등 연초부터 글로벌 보폭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1/13>